지방소멸 대응… 농촌유학 프로그램 '주목'

서거석 교육감 · 조희연 서울교육감 · 김종훈 경제부지사 등

진안 조림초 찾아… 향후 농촌유학 활성화에 힘 모으기로

전북 농촌유학 협력학교 중 한 곳인 진안 조림초등학교를 찾은 서거석 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일행이 학교 현장을 둘러본 후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작은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유학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서울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신들의 꿈을 키우고 있는 농촌유학 현장을 찾았다.

이들은 7일 오후 전북 농촌유학 협력학교 중 한 곳인 진안 조림초등학교(교장 한영구)를 방문했다.

이는 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전북도가 지난 8월 체결한 농촌유학 활성화 협약을 바탕으로, 지난달 시작된 농촌유학 현장에서 도시 아이들과 농촌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진안 조림초는 아토피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전국에서 전학을 오는 아토피 안심학교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에 서울에서 8명의 초등학생이 이 학교로 유학을 왔다.

이에 조림초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스파실과 황토길 등 아이들이 건강을 챙기기 위한 시설들이 잘 조성돼 있다. 이와 함께 원어민 영어캠프와 골프, 치유숲 연계 방과후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유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서 교육감과 조 교육감 그리고 김 부지사는 이날 맨발로 걷는 황토길 체험과 운동장, 골프연습장, 스파실 등 다양한 시설을 둘러봤다. 또 운동장에서는 함께 턱걸이를 하고, 교실에서는 아이들과 바이올린을 켜기도 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유학생 학부모는 "농촌유학은 정말 아이들에게 완벽한 교육이다.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서울에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서 "유치원에 다니는 둘째도 내년에 조림초에 입학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들은 유학생과 학부모들이 거주하는 치유마을도 둘러본 후 농촌유학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최고의 프로그램이라며, 향후 농촌유학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전북도는 지난 8월 3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농촌유학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을 바탕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진안 조림초를 포함해 임실 지사초와 대리초, 완주 동상초와 운주초, 순창 동산초 등 총 6개교에서 농촌유학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가족체류형 12가구 17명, 홈스테이형 4명, 유학센터형 6명 등 총 27명의 유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서울에서 하는 정책 중 가장 의미 있는 정책 중 하나가 농촌유학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소멸 위기, 나아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만한 게 없다"면서 "서울 학생들이 전북 농촌유학을 통해 자연친화적 생태 감수성이 있는 미래시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농촌유학을 통해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이 소통과 협력의 길을 넓혀갈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 전북을 농촌유학 1번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농촌유학에 참여한 유학생은 물론 재학생, 학부모, 선생님까지 모두가 만족해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하게 돼 더욱 기쁘다.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함께 어울리며 생활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흡한 부분은 함께 개선해 가면서, 내년에는 농촌유학을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김동욱 교수 의용생체공학상 수상

전북대학교 김동욱 교수(공과대학 바이오메디컬공학부 · 사진)가 '대한의용생체공학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4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이 상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의공학 분야 학술단체인 대한생체의공학회가 매년 국내 의용생체공학 분야 기술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에 주는 국내 최고의 과학기술자상이다. 올해로 29회째를 맞았다.

김동욱 교수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기산업육성 · 지원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 위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을 역임, 의공학 분야 학술 업적으로 27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특히 대학 내에서 큰사람교육개발원장, 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ACE+) 단장, 고령친화복지기기 연구센터장 등을 지낸 바 있다.

현재는 일본 오사카대학 초빙교수로 파견돼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전북권역 대학 연합 진로캠프 성료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센터장 이상행)는 지난 4~5일 이틀간 모항해나루가족호텔에서 '전북권역 대학 연합 진로 캠프'를 성황리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내 대학에 재학중인 1~2학년 학생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지역 청년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각자의 진로 로드맵 및 커리어 비전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자존감 향상을 위한 성취 경험 탐색 △커리어 맵핑(지배가치 찾기) △진로 로드맵 설계 및 발표 등 메타인지와 직무를 기반으로 다양한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며 자신을 이해하고 자존감을 높여 비전과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상행 센터장은 "전주대학교는 진로 취업 프로그램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대학과 공유하며 도내 청년들에게 더욱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커리어 비전을 찾고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글로벌 지속가능 소고기 협의체' 공식 회원 되다

〈GRSB〉

전북대 교내 벤처기업 '멜리엔스'

저탄소 소.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축산 탄소중립 연구기술 지속가능 축산 기여 전망"

전북대학교는 교내 벤처기업인 저탄소축산 C-테크 스타트업 '멜리엔스'(대표 이학교)가 '글로벌 지속가능한 소고기 협의체인 GRSB(Global Roundtable for Sustainable Beef)'의 공식 회원으로 가입됐다고 7일 밝혔다.

GRSB에는 맥도날드, 월마트, 타이슨, 카길 등 세계적인 축산관련 20여 개의 생산과 유통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한 협의를 통해 소고기의 생산과 유통 전반 과정에서 환경과 사회, 경제적 실행 가능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ESG 축산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GRSB는 글로벌 소고기 가치 사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만들어진 글로벌한 다자간 협의체다. 지금까지 소고기 탄소배출에 대한 측정 기술과 기업의 책임을 논의했으며, 2030년까지 소고기 탄소 배출을 50%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전 세계에는 150억 두의 소가 사육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50억 톤으로 인간이 경제활동 등으로 배출하는 모든 온실가스 중 10%에 달한다.

멜리엔스가 공식회원으로 가입됨에 따라 세계 시민 사회에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과 축산분야의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 및 기술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번에 공식 회원으로 GRSB에 가입된 멜리엔스는 전북대 LINC3.0사업단 기술사업화 교원창업 스타트업 기업이다. 10년간의 준비기간을 통해 세계최초 유전체 데이터 기반의 소에서 배출되는 개체별 온실가스를 계측 검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탄소 크레딧 측정으로 글로벌 탄소 배출권 거래가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다. 관련 기술에 대해 국내는 물론 미국과 국제특허를 출원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테크밸리선정과 함께 30억 원의 기술신용보증서를 받았다. 글로벌 진출을 위해 미국 시애틀에 현지 법인도 설립했다.

한편 내년 1월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미국 라스베가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참석, 축산탄소중립 플랫폼 기술발표와 함께 글로벌 사업 전개를 위한 투자설명회 통해 대학의 기술사업에 대한 글로벌 세일즈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학교 대표는 "축산 부문에 있어 소고기 생산과 유통, 소비에 걸쳐 광범위하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가치 구조의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면서 "우리의 축산탄소중립 연구 기술이 세계적인 진출로 인해 글로벌한 축산탄소중립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축산에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Q-ray 장비 활용 양질 서비스 제공"

전주비전대, 원광보건대와 산업체 공동 애로기술지도

전주비전대학교 뷰티헬스케어ICC(기업협업센터)는 지난 4일 전주사랑사랑치과에서 원광보건대와 협력해 산업체 공동 애로기술지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업협업센터(ICC)는 지역 내 산업체와 연계해 대학의 특화분야를 집중육성하기 위한 조직으로,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및 산업체 애로기술지도, 산업체 특강을 실시하는 LINC 3.0 사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이번에 실시한 애로기술지도는 전주사랑사랑치과가 요청한 Q-scan 장비를 활용한 구강위생교육을 전주비전대와 원광보건대 치위생과에서 공동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했다.

전주사랑사랑치과 김현순 부장은 "Q-ray장비를 활용해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이번 기술지도에 만족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협업센터 활동에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김미정 뷰티헬스케어ICC 센터장은 "이번 산업체 애로기술지도를 통해 일선 업체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치과장비의 디지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을 지도했다"며, "특히 원광보건대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해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역교육 발전에 헌신한 이들에게'

남원교육대상 시상식 수상자에 대강초 정희 교사 아영중 김화령 교사 등

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신병기)과 재단법인 수곡장학회(이사장 양해석)는 '남원교육대상' 시상식을 갖고 교육현장에서 교실수업 개선과 남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교사를 포상했다.

지난 2007년부터 수여해 온 교육대상은 올해 16회로, 수상자는 유 · 초등 부문 정희 교사(대강초), 중 · 고등 부문에서 김화령 교사(아영중)가 수상했다.

정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학습자 수준에 맞는 맞춤형 개별지도와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천해왔으며, 또한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배려와 인권 존중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학생 자치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교원 학습공동체 활성화, 학부모회와 소통하는 학교 업무 추진 등으로 민주적이고 건강한 학교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하였다.

김 교사는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을 위한 수업혁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남원지역 중등 영어교사 수업 연구동아리를 창설하고 운영하고, 또한 남원영재교육권, 으뜸인재 육성사업 강사로 활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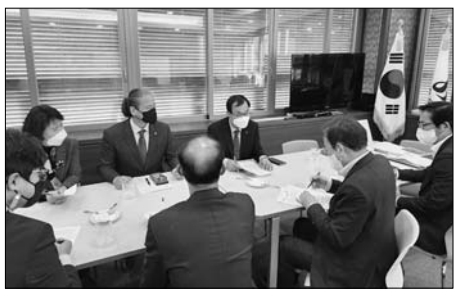
특히 원어민을 활용한 협력수업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 컨설팅 장학지원 및 교수학습 자료개발을 통해 교실 수업 개선 및 남원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던 2020년 당시 남원 관내 중학교에서 최초로 줌(zoom)을 활용한 쌍방향 온라인 수업 환경을 구축하는 등 전북영어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한편 남원교육대상에 선정된 교사에게는 남원교육지원청에서 기념패를 수여하고, 재단법인 수곡장학회에서 1인당 200만원의 해외연수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교총 "조직 개편, 교육계 의견 충분히 수렴해야"

도교육청과 정책협의회서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7일 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전북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7일 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전북교총 회장단과 임원 등과, 서거석 교육감과 민주시민교육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교총은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대해 "이태원 참사로 인해 국가 애도기간 중 자칫 교육계 내부 갈등으로 비칠 수 있는 갈등상황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육구성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종 회장은 "조직개편의 계획과 도교육청의 입장 표명을 명확히 해 교육가족의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이러한 분쟁은 오롯이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짐과 동시에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조직 개편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서거석 교육감은 "본질적으로 교육청의 행정은 학생 교육에 중심을 둬야 한다"면서 "교육단체들과의 소통과정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맞게 합리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북교총은 이외에도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력 회복을 위한 전북교육인권센터의 모델 제안,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교원인사제도 개선,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과 통학환경을 꼼꼼히 고려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교권보호를 위한 교육청의 적극 행정, 연구학교의 부활, 공동학구형 어울림학교 확장 등을 건의했다.

/장은성기자

손 씻기 · 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